

국도, 중국 Epoxy Resin 2만톤 투자

2002년부터 3년간 1000만달러 투자계획 … PU 2만톤 플랜트 동시건설

국도화학(대표 이은택)이 글로벌화 전략의 일환으로 Epoxy Resin과 PU(Polyurethane) 중국시장에 진출한다고 밝혔다.

투자규모는 1000만달러로 2002년 2월부터 3년간에 걸쳐 진행할 예정이며, 에폭시수지 2만톤 및 폴리우레탄 2만톤 플랜트를 건설할 계획이다.

초기에는 중국에서 급성장하고 있는 선박 및 컨테이너 도료용 및 건설자재용 수지를 중점 생산하며 향후 산업발전 에 따라 전기전자용 등 특수고부가가치 수지의 생산을 확대할 방침이다.

국도화학은 투자가 완료된 시점에서 1억달러의 매출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중국의 에폭시수지 시장은 중국경제의 지속적인 고도성장, WTO 가입, 올림픽 개최 등으로 산업의 급속한 발전과 더불어 폭발적인 성장을 계속하고 있으며 향후 5년 이내에 미국을 앞서는 세계 최대시장으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따라서 국도화학은 중국의 에폭시수지 시장에 경쟁사들보다 신속히 진출해 현지에서 직접 생산·공급함으로써 시장을 선점하고 한국에서와 같이 중국 에폭시수지 시장의 Market Leader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중국의 폴리우레탄 시장에도 진출해 국도화학의 제2주력사업으로 성장·발전시키기 위해 현지에 생산체제를 확보하고 원료 및 Isocyanate 생산기업들과의 전략적 제휴관계를 구축할 계획으로 일본 및 동남아 시장을 겨냥한 전략적 수출기지로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국도화학의 중국진출은 일본의 Asahi Denka와 자본, 기술, 영업 등 전방위에 걸친 전략적 제휴를 통해 성사돼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화학저널 석유화학 담당 박호연 기자>

<Chemical Daily News 2002/ 01/ 18>